

한국어 교재 속 유사 문법 목록 및 제시 양상 분석 연구

진 정·김 정 남
(경희대학교 박사수료·교수)

◆ 국문초록

한국어 문법 항목 중에는 형태, 의미, 화용 면에서 의미나 쓰임이 유사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다. 비슷한 형태를 가진 항목들이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으면서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에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간행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6종의 한국어 교재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 문법 항목들을 검토한 후 유사 문법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목록을 종합하였고, 어떤 항목들이 더 많은 교재에 출현하였는지를 비교 및 일람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교재마다 유사 문법의 제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이 제시 방식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바람직한 유사 문법 제시 방식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문법 항목, 목록, 유사 문법, 한국어 교재, 문법 교육

1. 서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보통 초급 단계에서 익힌 쉽고 자신 있는 문법 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고급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법 항목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학습자

들은 자신이 배운 다양한 표현에 비해 한정적인 표현들만 사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다양한 형태적 변이형들이 많이 존재하는, 즉 유사 문법 항목이 많은 언어이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에 아무리 유사 문법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유사 문법 간의 세밀한 차이를 언어 직관에 의해 간취하여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들은 유사 문법에 속하는 개별 항목들 간의 의미나 용법 차이에 관한 연구(안주호 2002, 진정란 2005, 김정화·김정남 2012, 유해준 2015, 2016, 이지용 2019a)와 유사 문법의 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양명희 2017, 유해준 2017, 2021, 이지용 2017a, 2017b, 2017c, 2019b, 최수정 2022)로 대별된다.

또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종적으로 고찰한 연구 동향 논문도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동향 논문으로는 박근희(2019)를 들 수 있다. 박근희(2019)에서는 2018년 10월까지 이루어진 유사 문법 관련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유사 문법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사 문법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목록 선정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으며 최근에 와서야 진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항목 배열 등에 관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였다.

교재 분석과 학습자 면담을 통해 한국어 유사 문법을 고찰한 연구로는 유혜영(2016)를 들 수 있다. 한국어 중급 교재를 분석하면서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의 수가 부족하고 교재별로 제시된 유사문법 항목 및 문법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 연구이다. 그러나 중급 교재에 한정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타난 유사 문법 항목의 목록 및 유사군의 제시 양상, 내용 기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재에서의 유사 문법 항목의 제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어 교재에서의 유사 문법 항목 제시 내용이 나 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들에서 유사 문법 항목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자별로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지용(2017a)와 강현화 외(2017)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 정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에서는 “문법 항목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초래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정의를 내렸고 후자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미적, 문법적, 담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또 비슷한 개념을 표현하면서도 ‘유사 문법 항목’이 아니라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유해준(2015, 2017)에서는 ‘유사 기능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양명희(2017)에서는 ‘유사 문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의미나 기능뿐 아니라 형태가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문법”으로 정의하였고 후자에서는 이지용(2017a)와 동일하게 “문법 항목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초래될 수 있는 문법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 최수정(2022:50)에서는 ‘유의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에서 동일한 분포와 문법적 기능을 가지며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둘 이상의 문법 항목”이라고 지칭하였다. 앞선 연구들의 유사문법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점이나 혼동 가능성에 주목한 데 반해 최수정(202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중립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상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유사성을 의미에 두는가 기능에 두는가의 차이가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세밀히 고찰하기 위해 먼저 ‘기능’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민영(2012:51-52)에서는 ‘기능’은 ‘형식’과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미’와 한 부류의 개념이라 하였고 ‘의미 기능’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며 의미를 밝히는 일이 곧 기능을 밝히는 일과 동일시되어 의미론의 영역에서 기능을 의미의 문제로 포괄하여 다루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¹⁾

이에 따라 ‘유사 기능’이라는 용어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폭넓게 사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해준(2017)은 통사적 기능이 유사한 문법 항목을 ‘유사 기능 문법’이라고 지칭하였고 강현화 외(2017)에서는 ‘담화 기능’을 강조하면서 유사 문법 목록을 제시하였다. 결국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법 항목들 간에 발생하는 ‘유사성’은 한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기능, 통사 기능, 담화 기능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사 문법의 정의 역시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유사성의 범위에 형태, 의미, 통사, 담화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으로 삼고자 하며, 유사 문법 항목의 정의를 다음 (1)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형태, 의미, 통사, 담화적 측면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 대치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학습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법 항목.

본고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인 입장에서 유사 문법을 정의하고 고찰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들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개별 유사 문법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차이가 발견된다. 특정 문법 항목들을 유사 문법 항목에 넣은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는 것이다.

가령, ‘-(으)ㄹ망정’과 ‘-(으)ㄹ지언정’, 그리고 ‘달라고 하다’와 ‘주라고 하다’와 같은 항목은 본고에서 6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마땅히 주요 유사 문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했는데, 이지용(2017a)에서는 이 항목들을 유사 문법 항목에 넣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항목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항목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이와 관련하여 최수정(2022)에서는 문법 항목의 ‘의미’가 뜻하는 개념을 ‘기능’과 비교하였는데 전자는 “문장 차원에서 고정적으로 표현되는 실질성이 비교적 높은 문법적 의미”로 정의하였고, 후자는 다시 ‘화용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화용적 기능’은 “담화 차원에서 문법적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맥락 안에서 추론되는 함축적 의미”로 규정하였고, ‘문법적 기능’은 “문장 내에서 문법성분으로서 수행하는 역할”로 규정하였다.

또 양명희(2017)에서도 이지용(2017a)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채택한 기준이 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기준과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013, 2014)에서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한 ‘-고 싶다’, ‘-고 싶어하다’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이지용(2017a)에서는 ‘-고 싶어하다’는 ‘-고 싶다’에 ‘-어 하다’가 통합된 형식일 뿐 다른 문법 항목이 아니라고 하여 이 둘을 서로 유사 문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 이지용(2017a)에서는 ‘-더니’, ‘-었더니’와 같은 항목도 동일한 이유로 유사 문법 항목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사 문법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단지 시제 형태소의 결합 유무에 따라 모든 문법 항목들이 다 유사 문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목들이 단지 시제의 차이를 넘어 사용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의미 역시 시제 의미의 차이 이상으로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들을 단지 시제 통합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유사 문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교수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가’와 ‘-었다가’를 유사 문법 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었다가’는 ‘-다가’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단순히 통합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제약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형태적으로 유사한 항목들이 세부적인 의미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의미적으로 유사하나 형태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형태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통사적 제약에 따라 세부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형태, 의미, 통사적 유사점이 있으나 담화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 등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발간된 주요 한국어 교재 속에서 이러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비되어 제시된 예들을 추출하고 교재 간 중복도를 볼 수 있게 목록화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 문법을 제시하는 용어, 제시된 내용, 예문, 설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유사 문법 제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교재 선정

본고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살펴보기 위한 교재 선정 과정에서 우선 한국어 교재가 비교적 전통적인 통합형 교재와, 최근에 나온 내용-기능 분리형 교재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형 교재 3종과 분리형 교재 3종을 선정하였다. 통합형 교재로는 <서울대 한국어>(이하 <서울>으로 약칭), <연세 한국어>(이하 <연세>로 약칭)²⁾, <이화 한국어>(이하 <이화>로 약칭)를 선택하였으며 분리형 교재로는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이하 <성균>으로 약칭), <경희대 한국어 문법1>(이하 <경희1>로 약칭), <경희 한국어 문법2>(이하 <경희2>로 약칭)³⁾를 선택하였다.

위 교재들을 선택한 이유는 총 세 가지이다. 첫째, 초·중·고급 단계를 갖춘 시리즈 교재라는 점, 둘째, 교재의 집필 기관이 한국어 교육 경험이 많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학에 속해 있다는 점, 셋째, 해당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많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 2) 연세대학교의 교재로는 최근에 간행된 분리형 교재인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교재도 있으나, 이 교재는 1-1~4-2권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 교재에 포함하지 않았다.
- 3) 여러 대학의 교재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같은 대학에서 시기를 달리해서 출판된 교재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다르게 선정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경희대학교에서 출간된 분리형 교재 2종을 선정하였다. 물론 같은 대학 기관의 교재를 두 가지나 분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교재는 유사 문법 항목 선택에서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둘 다 선택하였다. <경희2>는 최신 교재이지만 오히려 유사 문법 항목이 더 적게 제시되었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최신 교재라는 점에서 선택을 했고 <경희1>은 유사 문법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선택했다. 참고로 박근희(2019)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한다. 2014년에 초판이 나온 <경희1>은 가장 많은 유사 문법 항목을 싣고 있고 2020년에 초판이 나온 <경희2>는 유사 문법 항목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 동향과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의 출현도가 이렇게 일치하는 방향을 갖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분석 기준 수립

교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 혹은 평가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민현식(2000), 이해영(2001), 서종학(2002), 황인교(2003), 한송화(2003), 김영선(2006), 홍종명·이준호·안정호(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문법 항목의 기술에 관한 기준, 문법 항목 전체의 위계화에 관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문법 기술에 관한 기준은 문법 표제어 제시에 관한 기준, 예문 제시에 관한 기준 등으로 더 세분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 기술 부분 분석 기준

형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이 문법 형태를 잘 보여 주기에 적절한가? • 제시된 예문은 문법 항목의 다양한 형태적 결합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의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인 정보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된 의미는 예문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는가?
통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문법 항목 간의 통사적 특징 차이를 강조하고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된 통사적 제약 정보는 예문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는가? 자주 같이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가?
화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문법의 화용적인 특징과 제약을 기술하고 있는가? • 예문을 통해 화용적 기능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각 교재에 나타난 유사 문법 항목들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 확인

본고에서는 총 다섯 개 기관의 여섯 종의 교재를 선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서울>, <성균>, <경희1>은 모든 단계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세>의 경우 3급, <경희2>의 경우 6급, 그리고 <이화>의 경우 3급, 6급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다루지 않고 있다.⁴⁾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서만 유사 문법 항목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추출하고 정리하는 것은 다음 두 단계를 따른다. 먼저 교재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하여 비교 군으로 묶은 항목들을 모두 추출하여 망라한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본고의 유사 문법 항목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재정리하여 목록을 확정한다.

한편, 교재에서 관련군으로 묶어 제시한 것이라도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제할 것은 배제하여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 첫째, 이형태로 제시된 것이나 준말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어도 유사 문법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⁵⁾ 둘째, ‘-(으)ㄴ 수 있다’와 ‘-(으)ㄴ 수 없다’, ‘-(으)ㄴ 줄 알다’와 ‘-(으)ㄴ 줄 모르다’처럼 반의어 쌍으로 판단되는 것은 유사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어도 유사 문법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⁶⁾ 셋째, 한 항목의 여러 의미를 유사 문법으로 묶어 제시한 것을 유사 문법 항목에서 배제하였다.⁷⁾ 넷째, 형태적인 중복에 현혹되어 유사 문법으로 다루어진 항목들을 배제하였다.⁸⁾

4)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는 전체 권에 모두 일률적으로 유사 문법 항목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권별로 유사 문법 항목을 수록하고 있지 않은 권이 있는 이유가 무엇 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5) 이형태는 출현 환경이 다를 뿐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다는 기본 정의에 따라 배제하였으며 준말은 주로 비격식적인 글과 구어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문체적인 특성이 있을 뿐 그 의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문법 항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배제하였다.

6) 이러한 항목들은 형태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교재에서 함께 제시하여 유사 문법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본고에서 이들을 배제한 이유는 ‘있다’와 ‘없다’, ‘알다’, ‘모르다’는 의미적으로 반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 유사 문법 항목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7) 가령, 교재에서 ‘N(이)나’, ‘-다가’와 같은 문법 항목들에 대해 그 다의 항목들을 ‘비교’ 항목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문법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유사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제외한 것이다.

8) 가령, ‘-(으)려면’, ‘-(으)면’과 같은 항목은 ‘-면’이라는 부분이 형태적으로 겹치는 점 때문에 형태적 유사성이 커서 교재에서 이 둘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이상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교재에서 추출된 모든 비교 및 대비 항목들 중에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기준을 통과한 항목들만을 유사 문법 항목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그 목록을 정리하였다.⁹⁾ 일차적으로 6종의 교재에 나타난 모든 추출 대상 항목들을 분석하여 그중 이상의 기준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여 각 교재별 유사 문법 항목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 종 이상의 교재에 중복 출현하는 예들만을 따로 뽑아 <표 2>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유사 문법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교재에만 출현하는 항목은 <표 2>에서 볼 수 없다. <표 2>에는 적게는 2 종의 교재에, 많게는 6종 모두에 출현하는 항목들을 제시하였으며 항목 표기 방식은 각주 6)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일하였다.

<표 2> 6종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의 출현 현황

	유사 문법 항목		서 울	연 세	이 화	성 균	경 희1	경 희2
1	-입니다	-이에요/예요	○			○	○	○
2	-이/가 아닙니다	-이/가 아니예요				○	○	
3	하고	과/와, (이)랑	○	○	○	○	○	○
4	안	못	○				○	○
5	-(으)세요	-(으)십시오	○				○	○
6	-네요	-군요, -는군요	○		○			
7	-에서 -까지	-부터 -까지				○	○	○
8	-지 않다	-지 못하다	○				○	○
9	-아서/어서	-고	○			○	○	
10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	○	○	○	○	○	○
11	-아도/어도 되다	-아도/어도 괜찮다	○		○			
12	-기로 하다	-기로 결정하다, -기로 결심하다,					○	○

많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의 의미를 보면 서로 대치 가능한 정도의 의미 차이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들은 유사 문법 항목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9) 항목의 형태는 해당 교재에 제시된 것을 완전히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재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동사, 형용사 식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 V, A 처럼 약어를 쓴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대등한 비교를 위해서 모두 V, A 처럼 영문 약어로 통일해서 기술하였다.

	유사 문법 항목	서 울	연 세	이 화	성 균	경 희1	경 희2
	-기로 약속하다						
13	-아다가	-다가	○				○
14	달라고 하다	주라고 하다		○		○	
15	에게	한테	○	○	○	○	○
16	에게/한테	께	○	○		○	○
17	에게서	한테서	○	○	○	○	○
18	께서	이/가				○	○
19	은/는	이/가					○
20	-(으)ㄴ 거예요	-(으)ㄴ 겁니다	○				○
21	-고 싶다	-고 싶어하다	○	○		○	
22	-(으)니까	-아서/어서	○			○	
23	밖에	만	○			○	
24	-아/어 놓다	-아/어 두다	○			○	○
25	-았더니/었더니	-더니	○			○	
26	-게	-게끔	○		○	○	○
27	-도록	-게	○			○	○
28	-았던/었던	-던	○			○	○
29	-아/어 버리다	-고 말다	○			○	
30	-(으)며	-고	○			○	
31	-마저	-조차					○
32	-았/었다가는	-다가는					○
33	-기 마련이다	-게 마련이다		○		○	○
34	-기 마련이다	-는 법이다				○	○
35	-을/ㄴ 뿐더러	-을/ㄴ 뿐만 아니라		○		○	
36	-더라도	-아도/어도	○	○		○	
37	-더라고	-더라	○				○
38	-(으)나	-지만	○				○
39	-냐고 하다	-냐고 묻다	○			○	
40	-는 한이 있어도	-는 한이 있더라도	○				○
41	-고 나서	-고 나니(까)					○
42	처럼	같이	○		○		○
43	-거든	-(으)면	○		○		○
44	-다면	-(으)면	○			○	○
45	-기가 무섭게	-자마자	○			○	
46	-(으)ㄴ/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				○
47	-는 듯하다	-는 것 같다	○			○	

모든 교재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유사군은 전체 47쌍 중 ‘하고, 과/

와, (이)랑’,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의 4쌍에 불과하며 8.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유사 군들은 특정 교재들에서만 중복된다.

위 <표 2>를 통해서 교재 간 유사 문법 항목의 일치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43에서 보는 것처럼 ‘-거든’이 ‘-(으)면’과 비교 쌍을 이루기도 하고 44에서처럼 ‘-다면’이 ‘-(으)면’과 비교 쌍을 이루기도 하는데 ‘-거든’과 ‘-다면’을 따로 비교 쌍으로 설명한 교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으)면’을 매개로 해서 ‘-다면’, ‘-거든’까지 세 항목을 아울러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해 본다.

이 밖에도 위 <표 2>에서 ‘-(으)면/다면/거든’처럼 두 항목이 아닌 세 항목을 유사 문법 항목으로 묶을 만한 예가 두 가지가 더 있다. 26, 27에서 ‘-게/-게끔/-도록’이 한데 묶일 수 있고 33, 34에서도 ‘-기 마련이다/-게 마련이다/-는 법이다’가 한데 묶일 수 있다.¹⁰⁾ 또한 <경희1> 4, 69에서는 ‘-는 법이다/-기/게 마련이다’가 유사 문법으로 묶여 있지만 역시 단 한 종의 교재에서만 나타나는 항목이라 <표 2>의 집계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의 항목이 유사 문법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들을 모두 유사 문법 항목으로 묶어 제시하는 것이 문법의 기술 면에서도 체계적이고 교수-학습 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사 항목들을 교재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교재를 통한 체계적 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자들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유사 문법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이 항목들의 단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10) <경희1> 6, 8-2에서는 ‘-게/게끔’과 ‘-도록’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이렇게 ‘-게/-게끔/-도록’의 셋을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한 종뿐이라서 중복도를 보여 주는 <표 2>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Ⅲ. 유사 문법 항목들의 제시 현황

본장에서는 2.3에서 추출한 유사 문법 항목들의 구체적 제시 현황을 살펴보고 주로 어떠한 유형의 항목이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들은 어떻게 위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재에 유사 문법 항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교재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제시하면서 사용한 기술 용어를 검토한 결과 교재별로, 또 교재 내부에서도 다양한 표현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서울>에서는 118쌍의 유사군 가운데 ‘비교’라는 명시적인 용어로 기술된 것이 39쌍, ‘바꿔 쓸 수 있다’가 5쌍, ‘같은 의미’ 혹은 ‘의미가 같다’가 3쌍, ‘대신’이 2쌍, ‘마찬가지’, ‘유사’, ‘비슷한 표현’,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쓰임과 표현이 같다’, ‘형태는 비슷하다’, ‘같은 뜻이다’가 각각 1쌍씩으로 총 7쌍이 제시되었으며, 나머지 62쌍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술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¹¹⁾

<연세>의 경우 25쌍의 유사군 중에 ‘의 뜻이다’나 ‘의 뜻으로’라는 용어로 제시된 것이 4쌍, ‘바꿔 쓸 수 있다’가 2쌍, ‘interchangeable’이 2쌍, ‘의미가 유사하다’가 2쌍, ‘the same as’, ‘without much difference in its meaning’, ‘formality’, ‘같은 의미’, ‘의미로 쓰인다’와 같이 기술된 것이 각각 1쌍씩 총 5쌍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쌍은 뚜렷한 기술 용어가 없었다.

<이화>를 분석한 결과 12쌍의 유사군 중에 ‘can be substituted’라는 명시적인 용어로 제시된 것이 3쌍, ‘의미가 비슷하다’, ‘interchangeable’, ‘in place of’, ‘in a similar way’가 각각 1쌍씩으로 총 4쌍이 제시되었으며 나머지 5쌍은 특별한 기술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성균>에서는 51쌍의 유사군 가운데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용어로 기

11) <서울>의 경우 고급 단계에서 다른 문법 항목들은 해당 표제어와 예문만 제시되었고 특별히 유사 문법이라고 해서 따로 제시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표제어 제시 방식을 통해 유사 문법 항목을 판정하여 선정하였다.

술된 것이 19쌍, ‘비슷한 표현’이 6쌍, ‘유사’가 3쌍, ‘대신’이 2쌍, ‘대체’, ‘같은 의미’, ‘큰 구분 없이’, ‘vs’와 같이 기술된 것이 각각 1쌍씩 총 4쌍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쌍은 뚜렷한 용어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경희1>은 77쌍의 유사 문법 항목들 가운데 ‘바뀌 쓸 수 있다’라는 용어로 기술된 것이 11쌍, ‘의미가 비슷하다’가 3쌍, ‘대신’이 3쌍, ‘큰 의미 차이 없이’가 2쌍, ‘같은 의미’가 1쌍, 나머지 57쌍은 명료한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경희2>는 문법 영역에서 22쌍의 유사 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술 용어로는 ‘바뀌 쓸 수 있다’가 3쌍, ‘같은 의미’가 1쌍, ‘차이 없이’가 1쌍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쌍은 뚜렷한 기술 용어가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교재에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는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의 규명이 아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서울>에서는 ‘비교’라는 용어와 함께 유사 항목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을 모두 무차별적으로 유사 문법 항목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관련성만 있는 항목들을 모두 유사 문법 항목으로 다루게 되면 유사 문법 항목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진짜 유사 문법인 경우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함께 제시되지만 한 ‘비교’인 경우에는 ‘의사 유사 문법 항목’으로 달리 분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사 문법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던 ‘-려면’, ‘-(으)면’과 같은 항목은 기본적인 의미 차이가 커서 유사 문법으로 간주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을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그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여 전혀 별개의 항목으로 다루기보다는 ‘의사’ 유사 문법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¹²⁾

12) <서울> 2A, 7에서도 ‘-(으)려면, -(으)면’을 함께 대비하여 제시하고는 있지만 대치되는 관계가 아닌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4호선을 타려면, 사당역에서 갈아타세요. // 4호선을 타면 사당역에 갈 수 있어요.) 이 둘은 명백히 유사 문법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세분이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보는 교재가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지침서라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하여 유사 문법과는 다르지만 의사 유사 문법이라고 하여 따로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사가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사가 스스로 이러한 항목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재에 주로 어떠한 유형의 항목이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교재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아래 <표 3>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사 문법 항목은 문법 범주에 따라 크게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덩어리 표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단어나 형태소 같은 개별 형식보다는 다양한 덩어리 표현 단위로 제공된다는 것이 주목된다.

<표 3> 교재에 제시된 유사 문법의 유형

범주	통합 구성 방식	대표적인 형식 예시
명사		외, 이외
부사		즉
조사	조사	만큼, 만치
	조사+조사	에서~까지, 부터~까지
어미	연결어미	-아서/어서, -고
	종결어미	-(으)세요, -(으)십시오
	선어말어미	-었-/있었-
	전성어미	-(으)ㅁ, -기

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관련이 없는 항목이 아니고, 형태적인 유사성 때문에 오히려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항목이라 더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의사 유사 문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뎡어리 표현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형용사	-는/은/ㄴ 것 같다
	연결어미+보조용언	-아/어 놓다, -아/어 두다
	선어말어미+연결어미	-았/었더니, -았/었다가
	선어말어미+종결어미	-았/었던가(요)
	조사+동사활용형	에 대해(서), 에 관해(서)
	관형사+명사+조사	아무 N도, 아무 N(이)나
	관형사형어미+명사+조사	-(으)ㄴ 후에, -(으)ㄴ 뒤에
	연결어미+조사	-다가는, -아다(가)/어다(가)
	연결어미+의존명사+조사	-게 마련이다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기 마련이다
	전성어미+조사+동사/동사활용형	-기로 하다, -기(가) 무섭게
관용 표현	한마디로 말하자면[말해서], 다시 말해서	

3)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은 단계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위계화되어 있는가?

교재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의 위계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한 위계화의 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중섭 외(2011)에서는 문형의 등급 구분 기준에 대해 ‘빈도, 문법 항목의 복잡도, 학습자의 난이도, 활용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혜(2005:83)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문법을 배열하는 기준으로 ‘기능, 빈도, 학습 용이성, 교수 용이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유사 문법 항목의 위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과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와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를 비교하면서 위계화가 얼마나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위계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결어미 ‘-(으)면’은 일제히 초급 단계에 제

시되고 있으며 ‘-거든’은 일제히 중급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김종섭 외(2011), 양명희 외(2013, 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의 문법 제시 단계와도 일치한다.

한편 위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은 보조사 ‘까지’와 ‘마저’를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까지’는 초급, ‘마저’는 중급 단계의 문법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희1>과 <경희2>는 ‘마저’와 ‘조차’를 함께 기술하면서 모두 중급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문법 제시 단계와는 일치하지만 김종섭 외(2011)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까지’는 김종섭 외(2011)와 양명희 외(2013, 2014)에서 모두 초급 단계로 처리하고 있다. 또 ‘마저’와 ‘조차’는 김종섭 외(2011)에서는 고급 단계에 제시하였고 양명희 외(2013, 2014)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그 밖에 ‘이자’, ‘이면서’와 같은 항목은 <성균>에서는 고급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경희1>에서는 ‘이자’의 경우 고급 단계에서 제시하고 ‘이면서’는 초급 항목 ‘-으면서’에서 같이 기술하고 있어 편차를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국립국어원(2005)와 이희자·이종희(2010)에서는 ‘이자’와 ‘이면서’를 각각 ‘-자’와 ‘-면서’ 항목에서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교재마다 문법 항목의 제시 단계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위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수정(2003)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계화 문제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어느 것을 먼저 가르쳤을 때에 학습자 오류를 줄일 수 있는가와도 관련이 된다. 따라서 유사 문법 항목의 위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자 각각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방법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말뭉치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연구자들과 교수자들 간의 공동 작업 및 협의를 통해 일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IV.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 기술 분석 결과

본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분석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1. 형태 정보

1)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이 문법 형태를 잘 보여 주기에 적절한가?

- (2) 가. A/V-지 않을까 하다[싶다], N이/가 아닐까 하다[싶다]
 『서울』 5A: 175
 나. -만치, -만큼 『연세』 5-2: 256
 다. V-(으)르래요, V-고 싶다 『서울』 2B: 238
 라. 밖에, 만 『서울』 2A: 254, 『성균』 2: 140

(2가)는 불완전한 제시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 ‘-지 않을까 하다[싶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가 아닐까 하다[싶다]’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어가 명사인 경우 제시된 것처럼 ‘이/가 아닐까’ 형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지 않을까’의 형식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 아닐까’ 외에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형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나)는 유사 기능을 갖는 조사를 제시한 예인데, 문법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조사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형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 (2다)는 ‘-(으)르래요’와 ‘-고 싶다’를 유사 문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둘은 각각 ‘해요체’와 ‘해라체’로서 화계(話階, speech level)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둘을 제대로 유사 문법으로 제시하려면 ‘-(으)르래요’를 ‘-(으)르래’로 바꾸거나 ‘-고 싶다’를 ‘-고 싶어요’로 바꾸어 화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는 ‘-(으)르래(요)’, ‘-고 싶어(요)’처럼 화계상의 짝을 이루게 맞추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으)르래(요)’는 주로 구어에 나타나고 ‘-고 싶다’는 문어에 자주 등장하는

형식인 점을 고려하여 문어 형식 ‘-고 싶다’를 구어 형식인 ‘-고 싶어(요)’로 바꾸어 제시해 주면 문체상으로도 진정한 유사 문법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라)의 ‘만’과 ‘밖에’도 진정한 유사 문법 항목이 되려면 다른 장치도 더 필요하다. 단순히 이 두 조사만을 서로 대치해서는 의미 기능이 같지 않으므로 유사 문법이라 하기 어렵다. 즉 최소한 ‘밖에+부정’, ‘만+긍정’의 형식이라도 제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부정, 긍정’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만 실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밖에+부정’, ‘만+긍정’ 식으로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없다/모르다’, ‘만 있다/알다’처럼 구체적인 어휘 형태를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제시된 예문은 문법 항목의 다양한 형태적 결합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3) 가. 좀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거든 출발합니다.

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오거든 좀 받아 주세요.

『이화』 4, 92

다. 히엔 씨가 왜 웃는지 알아요?

네,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성균』 2, 118

(3가), (3나)는 연결어미 ‘-거든’을 사용한 예문인데 2개의 예문이 모두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며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든’에 선행하는 용언은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도 있다. 이때 동사의 예만을 제시하면 마치 ‘-거든’이 동사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어미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에 ‘좋거든, 바쁘거든’처럼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문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화>에서도 ‘-거든’과 ‘-(으)면’을 유사 문법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 ‘-거든’의 예문만을 제시하고 ‘-(으)면’의 예문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3다)는 문법 항목 ‘-는지 알다/모르다’를 사용하는 예문 중에서 주로 ‘-는지 알다’의 사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는지 모르다’의 예문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형태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예문을 제시하여 결합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의미 정보

1)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인 정보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4) 가. ‘-자마자’와 ‘-는 대로’는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나 동작이 일어나고 곧 이어 다음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한다. ‘-자마자’는 앞의 일이 완료되고 바로 이어 다음 일이 일어날 때, ‘-는 대로’는 앞의 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음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한다.

- 밖에 나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
- 밖에 가는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

『경희1』 3, 179

나. -고 말다: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말았다. (○)
- 책을 다 읽고 말았어요. (×)

-아/어 버리다: 어떤 행위를 다 끝내서 부담을 덜게 되었을 때 사용한다.

-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 버렸다. (×)
- 책을 다 읽어 버렸어요. (○)

『서울』 3B, 260

다. ‘-아/어 버리다’와 ‘-고 말다’는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 완료됨을 나타낸다.

-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져 버렸다.
-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말았다.

‘-아/어 버리다’ 주로 쓰는 상황: 화자의 의지로 끝낸 행동.
의미의 초점: 결과

‘-고 말다’ 주로 쓰는 상황: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 의미의 초점: 과정

『경희1』 4, 184

라. ‘-고 싶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사람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 주어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는 ‘-고 싶어하다’로 사용한다.

- 점심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 왕랑 씨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해요.

『성균』 1: 96

‘즉시 표현’으로 묶이는 ‘-자마자’와 ‘-는 대로’는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이 일어난다는 순차의 의미를 갖는다. (4가)처럼 교재에서는 ‘-자마자’와 ‘-는 대로’의 공통점을 앞의 일이 ‘완료됨’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명희 외(2014:276)에서는 앞뒤의 상황이 우연적인 경우에는 ‘-자마자’만 사용할 수 있고 ‘-는 대로’는 쓸 수 없다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강현화 외(2017)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는 대로’는 앞의 일이 뒤의 일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에 우연히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우연성’이라는 설명이 ‘지속성’이나 ‘완료’라는 설명보다 명시적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사 문법 항목의 의미를 기술할 때 메타언어를 추상적이지 않고 명시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해서 변별적 의미 자질을 부각해 설명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4나), (4다)에서는 ‘-아/어 버리다’와 ‘-고 말다’의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 간에 상충됨을 보여 준다. (4나)에서 ‘-아/어 버리다’는 어떤 행위를 다 끝내서 부담을 덜게 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4다)에 적용하면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져 버렸다.’에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므로 그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태적 의미는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직관의 차이가 크므로 교재 편찬 시에는 특히 양태와 관련한 예문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라)에서는 ‘-고 싶다’와 ‘-고 싶어하다’의 변별적 의미를 주어가 ‘나’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인가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2인칭과 3인칭을 포괄하게 된다. 3인칭에는 ‘그 친구도 먹고 싶어한다./싶어하니?’처럼 ‘-고 싶어하다’가 쓰이는 것이 맞지만 2인칭에는 1인칭과 마찬가지로 ‘-고 싶다’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설명은 틀린 것이 된다. ‘너도 먹고 싶니?/*너도 먹고 싶어하니?’를 고려하면 2인칭에는 ‘-고 싶다’를 쓸 수 있고 ‘-고 싶어하다’는 쓸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고 싶다’는 1인칭과 2인칭에, ‘-고 싶어하다’는 3인칭에 쓰는 것이다. 그럼에도 (4라)의 설명은 이와 달리 1인칭에 ‘-고 싶다’, 비일인칭(나 아닌 다른

사람)에 ‘-고 싶어하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술상의 상충 및 오류가 발견된다.

2) 제시된 의미는 예문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는가?

(5) 가. 장소이 씨, 이 식혜 좀 드세요. 식혜가 아주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군요.

『이화』 2-1: 92

나. 할머니는 호랑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균』 5-1: 258

‘-(는)군요’와 ‘-네요’를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에서 (5가)처럼 ‘-(는)군요’에 대한 예문만 제공하고 ‘-네요’에 대한 예문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5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서야’에 대한 예문만 제시하였고 그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은/니 다음에’에 대해서는 예문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단순 대치 항목이라도 예문을 명시적으로 함께 제시하여 대비시켜 주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더 적절할 것인데 용법의 차이가 발견되는 예에 대해 한쪽만 예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교재에서의 기술상의 문제점 중 하나로 ‘예문 제시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의 (4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 (4가)에서의 제시 방식을 보면 ‘-자마자’의 경우에는 예문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지만 ‘-는 대로’에 대해서는 비문만 예시로 제시했고 ‘-는 대로’가 적절하게 사용된 예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는 대로’의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통사 정보

1) 유사문법 항목 간의 통사적 특징 차이를 강조하고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6) 가. -아/어 놓다: 어떤 행위를 끝내고 그 상태를 유지함을 나타낸다. '-아/어 놓다'를 대신하여 '-아/어 두다'를 쓸 수 있다. 이 역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아/어 놓다'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제가 미리 예약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제가 미리 예약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2B: 249

나. '-아/어 놓다'는 동사 어간에 붙어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다른 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보통 '-아/어 놓다'는 '-아/어 두다'와 큰 구분 없이 쓰인다.

- 추운데 왜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집안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서 잠깐 열어 놓았어요.
-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기차표를 예매해 두었다.

『성균』 3: 94

다. '-아/어 놓다/두다'는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나 동작이 완료된 후에 그 상태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때 사용한다.

『경희1』 4: 177

라. '-아/어 놓다/두다'는 어떤 동작을 끝낸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놓다'와 '두다'를 같이 사용할 때 '놓아두다'로 사용한다. 준비를 위한 동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 문 앞에 왜 이렇게 책을 쌓아 놓았어?
안 보는 책이어서 버리려고.
-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경희2』 중급1: 100

교재에는 '-아/어 놓다', '-아/어 두다'는 주로 '완료', '결과의 지속', '대비하기'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양태 보조 용언 '-아/어 놓다'와 '-아/어 두다'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한송화(2000), 김정남(2011), 강현화 외(2017)를 들 수 있다. 한송화(2000)에 따르면 '-아/어 놓다'와 '-아/어 두다'의 차이는 두 보조동사의 양태적 의미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므로 두 항목은 모두 완료와 지속상을 지니며 '-아/어 두다'는 '주어에 이익이 되는 행위'에만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더 세부적인 논의로 김정남(2011:68)에서는 ‘-아/어 놓다’와 ‘-아/어 두다’의 공통점을 ‘행동의 끝냄’이라는 상적 의미 및 ‘결과의 유지’라는 양태적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두 보조 용언이 상적 의미에 있어 동일하게 파악되지만 양태적 의미에 있어 ‘-아/어 두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갖는 본용언과 어울릴 수 없다고 하였다. 강현화 외(2017)에서는 ‘-아/어 놓다’와 ‘-아/어 두다’는 주어 자리에 유정물이 오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앞에 선어말 어미 ‘-았-’, ‘-겠-’이 결합되면 문장이 어색하다고 설명하였다. 양명희 외(2014:510)에서는 김정남(2011)의 논의와 유사하게 ‘-아/어 놓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아/어 두다’는 결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할 때는 ‘-아/어 놓다’가 어색하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문은 다음과 같다.

- (7) 가. 그 일은 이미 앞질러 놓은 물이다.
 나. *그 일은 이미 앞질러 둔 물이다.
 다. ?내일 경기를 위해 힘을 아껴 놓읍시다.
 라. 내일 경기를 위해서 힘을 아껴 둡시다.

교재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 ‘-아/어 놓다’와 ‘-아/어 두다’를 유사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두 항목 간의 통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고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를 혼용하여 제시했다. 보조 용언 구성의 양태적 의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여 화자들에게도 미묘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의 제약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혼동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시된 통사적 제약 정보는 예문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 자주 같이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가?

- (8) 가. 시도를 나타내는 ‘-아/어 보다’와 결합하여 ‘-아/어 본적(이)있[다없다]’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 저는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 2B: 245
 나. -더라도: ‘아무리’와 ‘비록’과 함께 쓰여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 아무리 회사일이 바쁘더라도 연락은 자주 하며 지내요.
『성균』 4: 32

(8가)는 ‘-(으)ㄴ 적(이) 있다/없다’가 ‘-아/어 보다’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는 양상을 예문을 통해 보여 주고 있고 (8나)에서는 ‘-더라도’가 ‘아무리’, ‘비록’과 함께 쓰일 수 있음이 예문을 통해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8가), (8나)처럼 유사 문법 항목을 기술할 때 자주 공기는 어휘나 문법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해당 항목을 실제로 사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화용 정보

1) 유사문법의 화용적인 특징과 제약을 기술하고 있는가?

- (9) 가. -아야/어야 되다: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아야/어야 되다’는 ‘-아야/어야 하다’로 쓰기도 한다.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아야/어야 되다’를, 격식적인 상황이거나 글에서는 ‘-아야/어야 하다’를 주로 사용한다.
- 내일도 병원에 와야 돼요?
 - 오늘은 운동해야 돼요.
 - 여러분은 운동해야 합니다.

『서울』 1B: 213

나. -아야/어야/여야 하다: It emphasizes the needs or duties by using with a verb. ‘-어야 되다’ can be used as well without much difference in its meaning.

- 이 일을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해요/끝내야 돼요.
- 극장에서는 휴대 전화를 꺼야 해요/꺼야 돼요.

『연세』 2-1: 49

다. -아/어야 하다 is used to indicate that a certain action or state is necessary in a given situation. In colloquial speech -아/어야 하다 is often used in place of -아야/어야 되다.

- A: 오늘 오후에 같이 영화를 볼까요?
B: 미안해요. 오늘은 안 돼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

해야 해요.

- A: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B: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길도 잘 알아야 돼요.

『이화』 1-2: 121

라. ‘-아야/어야/여야 되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일을 꼭 할 의무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되다’ 대신에 ‘하다’도 많이 사용한다.

- 내일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돼요?
4호선을 타세요.

『성균』 1: 166

마. ‘-아야/어야 되다’는 동사에 붙어 문장의 내용이 필수임을 나타내며 ‘-아야/어야 하다’의 형태로도 쓰인다.

-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 외국에 여행을 갈 때에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경희1』 2: 130

바. ‘-아야/어야 하다/되다’는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의무나 필연적인 조건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아야/어야 되다’로도 의미상의 차이 없이 사용 가능한데 주로 구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아야/어야 되다’를 더 많이 사용한다.

-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해요.
- 여기에서 잠깐 기다리셔야 합니다.

『경희2』 초급2: 272

(9)는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당위 혹은 의무’ 표현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의 기술 내용이다. <서울>, <이화>, <경희2>에서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아야/어야 되다’가 아닌 ‘-아야/어야 하다’를 사용한다는 화용적인 차이를 기술하고 있고, <연세>, <성균>, <경희1>에서는 그러한 차이에 대한 서술 없이 서로 교체 가능한 표현으로만 기술하고 있다.¹³⁾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는 ‘당위성’ 외에 다양한 화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강현화(2008:38-39)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세

우기 위해 말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를 사용하게 되며 ‘거절, 충고, 부탁, 제안’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화용적 정보를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의 상황 등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아야/어야 되다’, ‘-아야/어야 하다’처럼 상황에 따라 화용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유사 문법 항목들에 대해서는 화용 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주면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초급 단계에서는 말뭉치 검증을 통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용법을 선택해서 제시해 주고 나중에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 더 많은 화용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2) 예문을 통해 화용적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9가), (9나), (9마), (9바)는 ‘당위성’, (9다)는 ‘거절’, ‘제안’, (9라)는 ‘당위성’, ‘제안’이라는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9다)에서는 대화문의 예를 통해 화자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담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거절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교재는 이러한 대화 쌍이 아니라 단독 문장만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 상황이나 맥락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다양한 사용 양상을 학습자에게 보여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유사 문법 항목의 화용적 기능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용적 정보를 담은 상황·맥락적 대화문 등 다양한 담화 예문을 교재 속에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유사 문법 중에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고 화용론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자유롭게 대치가 가능하지만 특정 문맥에서 특정한 표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10)은 밑줄 친

-
- 13) 이렇게 동일한 항목에 대해 교재 간에 설명이 다른 것은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이 모두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사 문법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 (10) 가. 교재 속에는 유의어의 예가 10개만 있다.
- 나. 교재 속에는 유의어의 예가 10개뿐이다.
- 다. 교재 속에는 유의어의 예가 10개밖에 없다.

(10가)~(10다)는 명제적 의미가 유사하고 문법적으로도 모두 맞는 표현들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10가)보다 (10다)에서 화자의 비판 의식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외국인 학습자들은 명시적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며 스스로 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단지 유사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항목들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 6종의 초급, 중급, 고급에 제시된 문법 항목 및 표현 항목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네 가지 배제 원칙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둘 이상의 교재에 중복되어 나타난 유사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유사 문법 항목의 형식은 크게 명사, 부사, 조사, 어미, 덩어리 표현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때 조사는 ‘만큼/만치’와 같은 일반 조사, ‘에서 ~ 까지’와 같은 조사+조사 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미는 ‘-고’와 같은 연결어미, ‘-(으)세요’와 같은 종결어미, ‘-었-’과 같은 선어말어미, ‘-기’와 같은 전성어미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 덩어리 표현은 ‘-는/은/니 것 같다’와 같은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형용사 구성, ‘-아/어 놓다’와 같은 연결어미+보조용언

구성, ‘-았/었던가(요)’와 같은 선어말어미+종결어미 구성, ‘에 대해(서)’와 같은 조사+동사활용형 구성, ‘아무 N도’와 같은 관형사+명사+조사 구성, ‘-(으)ㄴ 후에’와 같은 관형사형어미+명사+조사 구성, ‘-다가는’과 같은 연결어미+조사 구성, ‘-게 마련이다’와 같은 연결어미+명사+조사 구성, ‘-기 마련이다’와 같은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 구성, ‘-기로 하다’와 같은 전성어미+조사+동사 구성, ‘한마디로 말하자면’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 분류된다.

교재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특히 다양한 덩어리 표현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재들 간에 공통점이 있지만, 교재에 따라 다루고 있는 유사 문법 항목에 편차가 크며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측면뿐 아니라 어휘 항목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교재별 유사 문법 항목의 일치도도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교재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 간의 차이를 설명한 부분에서 내용 기술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교재별로 유사 문법에 대한 항목 선정과 설명 등에 편차가 크면 유사 문법 항목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석과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¹⁴⁾ 따라서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의 설정과 통일성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에 있어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정보에 대한 기술 문제와 예문 제시 부족 문제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 역시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유사 문법의 사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어 교재에서의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과 내용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육용 유사 문법 항목의 목록 선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내용 기술의 측면에서 그간 학계에서 축적된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14) 문법 전공이 아닌 교사들을 고려하면 이는 비단 학습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연구 성과를 교재 편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한다.

3. 유사 문법 항목의 제시나 설명에 일관성이 필요하며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결합 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 화용상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유사 문법 항목들은 그 세부적인 화용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5. 개별 문장 예문이 아니라 담화 맥락을 잘 보여 주는 예문을 제시해야 하며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제공해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 기능 중심 문법이 대두되면서 유사 문법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개별 유사 문법 항목들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유사 문법 전체에 대해 항목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록을 구축하는 작업, 구체적인 유사 문법 항목들을 망라하면서 그 항목들의 제시 형태나 기능 설명 방식 등에 대해 세밀히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 등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워 주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는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한국어 문법 교육과 교재 발간에 도움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어의 모든 가능한 유사 문법들을 전부 다 다룬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인·이유’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에 대해 ‘-아서’와 ‘-(으)니까’는 다루었으나 ‘-기 때문에’, ‘-(으)므로’는 다루지 못했는데, 이는 이 항목들이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의사’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교재 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때는 지면 관계상 유사 문법 항목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살펴보았고 ‘의사’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이다. 이에 ‘의사’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고찰은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
파크.
- 강현화(2008), 「어휘접근적 문법 교수를 위한 표현 문형의 화행 기능 분석
-‘어야하다/되다’를 사례로」,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
회, 21-46.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화·김정남(2012), 「한국어 이유 표현 “-느라고”와 “-는 바람에”에 대
하여」, 『텍스트언어학』 3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23.
- 김민영(2012), 「텍스트 유형에 따른 한국어 시제 기능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2003),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김영선(2006), 「한국어 교육 교재의 평가 기준연구」,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0.
- 김정남(2011), 「보조 용언 ‘놓다’와 ‘두다’의 양태적 의미」, 『한국어 의미
학』 36, 한국어 의미학회, 65-89.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____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
어원.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
- 박근희(2019), 「한국어 유사 문법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9-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65-493.
- 서중학(2002),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에 대한 실제적 평가: Lukoff(1993)
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3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9-324.
- 안주호(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9-180.
- 양명희 외(2013),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국립국

- 어원.
- _____ 외(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 _____ 외(2015),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3-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53-278.
- 유해준(201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아/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515-538.
- _____ (2016),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 -고와 -아/어서의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7, 중앙어문학회, 317-331.
- _____ (2017), 「한국어 유사 기능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20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9-93.
- _____ (2021), 「교육문법으로서의 유사 문법 연구」, 『어문론집』 85, 중앙어문학회, 425-449.
- 유혜영(2016), 「한국어 유사 문법 교육을 위한 수업 단계별 교육 방안 연구: 심층 면접을 통한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지용(2017a),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7b),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연구」, 『인문사회21』 8-1, 아시아문화학술원, 1019-1036.
- _____ (2017c),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유형 분류 연구」, 『영주어문』 36, 영주어문학회, 277-305.
- _____ (2019a),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 방안: ‘-으면/-면’과 ‘-거든’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1』, 한국문법교육학회, 107-127.
- _____ (2019b),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 『어문론집』 78, 중앙어문학회, 379-417.
-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232.
- 이희자·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진정란(2005), 「유의 표현 ‘-느라고, -는 바람에, -거든’의 교육문법 정보」,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9-200.
- 최수정(2022), 「한국어 유의 문법 교육을 위한 의미 중심 문법항목 범주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송화(2000), 「한국어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양태 기능, 화해적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9-209.
- _____ (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31-362.
- 홍종명·이준호·안정호(2020),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 국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한국언어문화국제학술포럼, 79-117.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87-329.

■ 한국어 교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 『서울대 한국어 1A』~『서울대 한국어 6B』, 투판즈.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 1-1』~『연세 한국어 6-2』,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미혜·김현진·구재희·윤영·이수행·권경미·유선희(2010), 『이화 한국어 1-1』, 『이화 한국어 1-2』, Epress.
- 김현진·이인경·강여림·박은선·김미영(2010), 『이화 한국어 2-1』, 『이화 한국어 2-2』, Epress.
- 구재희·현진희·이소영·황선영·김민선(2011), 『이화 한국어 3-1』, 『이화 한국어 3-2』, Epress.

윤영·허연임·권경미·이을지·최우전(2011), 『이화 한국어 4』, Epress.
 이정연·이민경·김민정·박수연·송순미(2012), 『이화 한국어 5』, Epress.
 이수행·조정민·박진철·조인숙·박수연(2012), 『이화 한국어 6』, Epress.
 이수미·박혜경·양진선·유소영(2018),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1』, 하우.
 이수미·김혜진·박혜경·양지선(2019),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2』, 하우.
 박현수·김승희·이연정·임수경(2019),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3』, 하우.
 윤하라·남궁정·박민신·장민정·오광근·현원숙·홍은실(2019),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4』, 하우.
 현원숙·남궁정·장민정·최주희·유하라·홍은실(2019),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5-1』,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5-2』, 하우.
 이연희·김원경·송안나·오광근·유현정(2019),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6-1』,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6-2』, 하우.
 <경희 한국어> 교재 편찬위원회(2014), 『경희 한국어 문법 1』 ~ 『경희 한국어 문법 6』, 하우.
 <경희 한국어> 교재 편찬위원회(2019), 『경희 한국어 초급1 문법』 ~ 『경희 한국어 고급2 문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부록

교재 속 유사 문법 항목

권	과	<서울>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1A	1	N이/가 아닙니다	N이/가 아니예요
	2	이거는[그거는, 저거는] N이에요/예요	이것은[그것은, 저것은] N입니까?, N입니다
		N하고 N, N과/와 N	N(이)랑 N
	6	V-(으)세요	V-(으)십시오
8	A/V-네요	A-군요, V-는군요	
1B	9	N(이)세요	N이에요/예요
	10	V-아서/어서	V-고
		V-(으)ㄹ 거예요	V-(으)ㄹ 것입니다, -(으)ㄹ 겁니다
	11	V-지 마세요	V-지 마십시오
		V-아야/어야 되다	V-아야/어야 하다
12	N(이)지요?	N이에요/예요	

		못 V	안 A/V
	13	V-(으)려고 하다	V-(으)ㄹ 거예요
	14	N한테[께]	N에게
		N한테서	N에게서
	15	V-고 싶다	V-고 싶어하다
2A	1	V-(으)려고	V-(으)러
	2	V-(으)ㄹ 줄 알다[모르다]	V-(으)ㄹ 수 있다[없다]
		A/V-지 않다	V-지 못하다
	4	A/V-았/었으면 좋겠다	A/V-(으)면 좋겠다
	5	A/V-(으)니까	A/V-아서/어서
	8	N 때문에	N(이)라서
	9	V-는 중이다	V-고 있다
N밖에		N만	
2B	10	V-(으)ㄹ래요	V-고 싶다
	12	N처럼	N같이
	13	N(이)기 때문에	N 때문에
	14	V-아도/어도 되다	V-아도/어도 괜찮다
		V-지 않으면 안 되다	V-아야/어야 되다
	16	V-아/어 놓다	V-아/어 두다
	17	V-아/어 있다	V-고 있다
3A	1	A-다고 하다	A-다고 말하다, A-다고 그랬다
	3	A-(으)냐고 하다, V-느냐고 하다, N(이)냐고 하다	A-(으)냐고 묻다, V-느냐고 묻다, N(이)냐고 묻다
		V-는 줄 몰랐다, A-(으)ㄹ 줄 몰랐다, N-(이)ㄹ 줄 몰랐다	A/V-(으)ㄹ 줄 몰랐다
		A/V-(으)ㄹ 줄 몰랐다	V-(으)ㄹ 줄 모르다
	4	A-(으)ㄹ 가 보다/V-나 보다	A-(으)ㄹ 것 같다/V-는 것 같다
	5	V-(으)ㄹ까 말까(하다)	V-(으)ㄹ까 하다
		V-지그래(요)	V-는 게 어때요
		N(이)라도	N(이)나
	6	A/V-거든(요), N(이)거든(요)	V-아서/어서, A/V-기 때문에
	7	A/V-았다가/었다가	V-다가
8	A/V-아야/어야 할 텐데	A/V-(으)ㄹ 텐데	
9	N을/를 위해(서), V-기 위해(서)	V-(으)려고	
	A-(으)ㄹ 데도 불구하고, V-는데도 불구하고, N인데도 불구하고	A/V-었는데도/었는데도	
3B	10	V-던	V-(으)ㄹ
		A/V-잖아요	A/V-거든요
		V-(으)ㄹ 생각이다	V-(으)ㄹ 계획이다, V-(으)ㄹ 예정이다
	11	A-다면	A/V-(으)면
	12	V-았더니/였더니	A/V-더니
A/V-(으)ㄹ/는 모양이다		A-(으)ㄹ/나 보다, A/V-(으)ㄹ/는 것 같다	

	13	V-도록	V-게
		V-도록	V-도록 하다
	14	A/V-았던/었던	A/V-던
	15	A/V-지 않으면 안 되다	안 A/V-(으)면 안 되다
	17	V-고 보니	V-아/어 보니(까)
	18	V-고 말다	V-아/어 버리다
4A	1	V-다 보면	V-아/어 보면
		N은/는 A-다는 것이다, N은/는 V-ㄴ/는다는 것이다	N은/는 A-다는 점이다, N은/는 V-ㄴ/는다는 점이다
	2	어찌나 A-(으)ㄴ지, 어찌나 V-는지	얼마나 A-(으)ㄴ지, 얼마나 V-는지
	5	V-다가는	V-다 보면
		V-다 보니(까)	V-다 보면
	6	여간 A-(으)ㄴ 것이 아니다, 여간 V-는 것이 아니다, 여간 A/V-지 않다	아주/매우 A/V-다
	7	A/V-더라도	A-다(고) 하더라도
		A/V-더라도	A/V-아도/어도
	8	V-아다(가)/어다(가)	V-다가
N을/를 비롯해서		N을/를 비롯한	
9	A/V-(으)며	V-고	
	A/V-거든	A/V-(으)면	
	A-(으)ㄴ 듯하다, V-는 듯하다	V-는 것 같다	
4B	10	A/V-(으)ㄴ 리(가) 없다	A/V-(으)ㄴ 리가 있다
		V-기(가) 무섭게	V-자마자
		A/V-(으)나	A/V-지만
	11	A/V-더라고	A/V-더라
		N에 의하면	N에 따르면
	12	N마저	N까지
	13	V-는 길에	V-는 길에
	15	N만 못하다	N보다 못하다
	16	설마 A/V-겠어요?	A/V-(으)ㄴ 리가 없다, A/V-(으)ㄴ/는 것은 아니겠지요?
	17	A-다 싶다, V-ㄴ/는다 싶다	A/V-(으)ㄴ까 싶다
A/V-았었-/었었-		V-았-/었-	
	V-는 사이(에)	V-는 동안(에)	
5A	1	N(까지는) 못 돼도 N은/는 A/V-(으)ㄴ 줄 알았다	N(까지는) 아니더라도 N은/는 A/V-(으)ㄴ 줄 알았다
		A/V-다는 인상을 주다, N(이)라는 인상을 주다	A/V-다는 인상을 받다, N(이)라는 인상을 받다
		V-는 한이 있어도	V-는 한이 있더라도
		V-는 등 (N)에 재능을 발휘하다, N에 재능을 발휘하다	V-는 등 (N)에 능력을 발휘하다, N에 능력을 발휘하다
		N을/를 시작으로 N을/를 거쳐 N을/를 말다	N을/를 시작으로 N을/를 거쳐 N을/를 하다
	2	N(이)란 N은/는 모두	N(이)란 N은/는 전부/다
3	N의 특징은 A/V-다는 데(에) 있다	N의 문제는 A/V-다는 데(에) 있다	

		A/V-다는 응답이 N에 달하다	A/V-다는 응답자가 N에 달하다
		N은/는 N에 그치다	N은/는 N에 불과하다
		V-는 경향을 보인다	V-는 경향이 있다
	4	N의 (대표적인) 예로 N을/를 들다	N의 (대표적인) 예로 N이/가 있다
		N 외	N 이외
	5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N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N의 역할이 중요하다	N이/가 큰 역할을 하다, N의 역할이 크다
		N에서 N의 비중이 높다, N에서 N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N에서 N의 비중이 크다, N에서 N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래 가지고(서)(야)	그래/저래 가지고(서)(야)
	6	A-(으)ㄴ/V-는 면이 있다	A-(으)ㄴ/V-는 일면이 있다
		A/V-지 않을까 하다, N이/가 아닐까 하다	A/V-지 않을까 싶다, N이/가 아닐까 싶다
	5B	7	한마디로 말하자면
A/V-(으)리만큼			A/V-(으)리만치
A/V-다는 거야			A/V-다는 거예요
8		다시 말해서	즉
		N 바람이 불다	N 열풍이 불다
11		N을/를 말하라면	N을/를 들라면/폼이라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앞에서 말한/이야기한 바와 같이
		N은/는 A/V-(으)ㄴ을 말해 주다	N은/는 A/V-(으)ㄴ을 보여 주다/알려 주다/나타내다
12		N에 대한 논란이 있다, A-(으)ㄴ가/V-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N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일다, A-(으)ㄴ가/V-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일다
		A/V-다는 지적이 있다	A/V-다는 지적이 많다, A/V-다는 점을 지적하다
		A/V-다는 점을 인정하다	A/V-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6A		3	N으로 보다
	4	V-(으)ㄴ 바에는 (차라리)	V-(으)ㄴ바에야 (차라리)
6B	8	A-(으)ㄴ/V-는 까닭에	A-(으)ㄴ/V-는 까닭으로
		N만 해도	N만 하더라도
	9	설사 A/V-다(고) 해도	설령/가령 A/V-다(고) 해도
	10	A/V-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	A/V-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13	A/V-던 차에	A/V-던 차이 ¹⁵⁾
		V-아/어 봤자	V-아/어 봤겠자
<연세>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1-1	2	하고	그리고
	4	V-고 싶다	V-고 싶어하다
1-2	6	N과/와	N하고
		N에게	N한테/께
	8	N에게서/한테서	N으로부터
2-1	2	V/A-어야/아야/여야 하다	V/A-어야 되다

2-2	6	V-습니다만/비니다만	V/A-지만
	7	V-달라고 하다	V-주라고 하다
	8	N에다가	N에
4-1	3	V-을/르 수가 있어야지요	V-을 수 없다
	4	여간 A/V-지 않다	여간 N 아니다
4-2	6	마치 V-는/은/을 것처럼	마치 V-는/은/을 것같이
		V-는/은/을 게 틀림없다	N-인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렇다
	8	V-게 마련이다	V-기 마련이다
5-1	3	V/A-을/르 뿐더러	V/A-을/르 뿐만 아니라, N뿐만 아니라
	4	V/A-되	V/A-는데, 단
	5	V/A-더라도	V/A-아도/어도/여도
5-2	6	V/A-는/은/ㄴ/인 듯싶다	V/A-는/은/ㄴ/인 것 같다
	7	V-자니	V-려고 하니
	9	N만치 V-을/르 수 없을 만큼	N만큼 V-을/르 수 없으리만치
6-1	5	V/A-으려면/려면	V/A-겠건만
		N-이라도/라도 V-을라치면/르라치면	V-으려고 하면
6-2	9	V/A-는다손/다손 치더라도	A-다고 하더라도
	10	V-으려고/려고 들다	V-으려고/려고 하다
<이화>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1-1	4	N하고	N과/와
1-2	8	N에게	N한테
	9	V-(으)ㄴ 후에	V-(으)ㄴ 다음에, V-(으)ㄴ 뒤에
	13	N에게서, 한테서	N께
	14	V-아/어야 하다	V-아/어야 되다
	15	A/V-아/어도 되다	A/V-아/어도 괜찮다, A/V-아/어도 좋다, A/V-아/어도 상관없다
2-1	1	N에 대해(서)	N에 관해(서)
	5	A/V-(는)군요	A/V-네요
2-2	8	N처럼	N같이
	9	N(이)나	N밖에
4	5	A/V-거든	A/V-(으)면
5	4	V-계끔	V-계
<성균>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1	1	N입니다/입니까	N이에요/예요
		N이/가 아니예요	N이/가 아닙니다
	2	N하고 N	N와/과 N
	4	V고 싶다	V-고 싶어하다
	7	N부터 N까지	N에서 N까지
	8	V-아야/어야/여야 되다	V-아야/어야/여야 하다
	11	N께서	N 이/가
	14	V-아서/어서/여서	V-고

2	2	V/A-았으면/였으면/였으면 좋겠다	V/A-(으)면 좋겠다	
		N과/와	N(이)랑	
	4	N에게/한테	N께	
		V/A-(으)니까	V/A-아서/어서/여서	
	7	N마다	매N	
	9	N밖에	N만	
14	N에게(서)/한테(서)	N께		
3	1	V-는다고/ㄴ다고 하다, A-다고 하다	V-는다고/ㄴ다고 듣다, A-다고 듣다	
		N에 대해(서)	N에 관해(서)	
	2	V/A-냐고 하다	V/A-냐고 묻다	
	3	V-으라고/라고 하다	V-으라고/라고 시키다/요청하다	
		달라고 하다	주라고 하다	
	4	V-자고 하다	V-자고 청하다/제안하다	
	5	V/A더니	V/A-았더니/였더니	
		V-아/어 놓다	V-아/어 두다	
	9	V-는다면	V/A-으면	
	10	V-왔던/었던	V-던	
	12	V-는 척하다	V-는 체하다	
	4	2	V/A-더라도	V/A-아도/어도
4		V-도록	V-게	
11		V/A-기 마련이다	V/A-게 마련이다	
		V-는 듯하다, A-은/ㄴ 듯하다	V-는 것 같다, A-은/ㄴ 것 같다	
12		V-을/ㄴ 바에는	V-을/ㄴ 바에야	
		어쩌나 V-는지	얼마나 V-는지	
		어쩌나 A-은/ㄴ지	얼마나 A-은/ㄴ지	
14		V-는다고/ㄴ다고, A-다고 난리이다	V-는다고/ㄴ다고, A-다고 야단이다	
15		V-기가 무섭게	V-자마자	
16		N에 불과하다	N에 지나지 않다	
		V-는 셈이다, A-은/ㄴ 셈이다	마찬가지이다, 다름없다	
5-1	2	V/A-ㄴ/을 따름이다	V/A-을/ㄴ 뿐이다	
	3	V/A-게끔	V-게, V-도록	
	4	N이자	N이면서	
		V/A-을/ㄴ 정도로	V/A-을/ㄴ 만큼	
	7	V/A-으면/면 몰라도	V/A-다면 몰라도	
	8	V-고서야	V-은/ㄴ 다음에	
	5-2	12	V-다시피 하다	거의 V-은/는 것처럼 하다
		V-는 법이다, A-은/ㄴ 법이다	V/A-기 마련이다	
13	설명 V-는/ㄴ다고 해도, A-다고 해도	설사 V-는/ㄴ다고 하더라도, A-다고 하더라도		
6-1	1	N을/를 막론하다	N을/를 불문하다	
	3	V-느니만큼	V-느니만치	
		A-으니/니만큼	A-으니/니만치	
7	V-는 만큼, A-은/ㄴ 만큼	V-는 만치		

6-2	9	V-기 나름이다	V-을/르 나름이다
	16	V/A-으려니/려니 하다[생각하다, 싶다] ¹⁶⁾	V/A-겠거니 하다[생각하다, 싶다]
<경희1>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1	1	N입니다	N이에요/예요
	4	V-ㅂ/습니다	V-아요/어요
	6	N이/가 아닙니다	N이/가 아니예요
	11	N에 가다	N에게/한테 가다
	16	N하고	N(이)랑, N와/과
	19	V-(으)세요	V-(으)십시오
	24	V-(으)세요?	V-십니까?
	26	N부터 N까지	N에서 N까지
	27	안 V/A	못 V
	28	V/A-지 않다	V-지 못하다
	32	N께서	N이/가
	38	V/A겠(1)	V/A-(으)ㄹ 거예요(2)
	46	N에게, 한테	N께, 예
	52	V/A-고(3)	V/A-아서/어서
54	N에게(서), 한테(서)	N께, 에서	
2	26	V/A-기 때문에	V/A-아서/어서, V/A-(으)니까
	39	V/A-아야/어야 되다	V/A-아야/어야 하다
	43	V-기로 하다	V-기로 결정하다, -기로 약속하다
	57	V/A-는다면/ㄴ다면	V/A-(으)면
3	19	V아/어 놓다	V아/어 두다
	24	V/A-(으)며	V/A-고
	26	V/A-더라	V/A-더군(요)
	30	V/A-던	V/A-었던
	47	V/A-아/어 가지고	V/A-아서/어서
	55	N더러/보고	N에게/한테
	65	V/A-(으)며	V/A-(으)면서
	66	V-아서/어서	V-고 나서
	67	N처럼	N만큼
	68	N만	N뿐
	69	V/A-네(요)	V/A-더라
	70	A-아지다/어지다	V-게 되다
	71	V/A-지만	V/A-기는 하지만
	72	V-자마자	V-는 대로
	73	V/A-거든(요)	V/A-잖아(요)
74	N(이)나	N밖에(없다)	
75	V/A-는데/(으)ㄴ데	V/A-던데	
4	18	V/A-(으)ㄴ/는 탓에, N 탓에	V/A-(으)ㄴ/는 덕분에, N 덕분에
	25	V-다가는	V-왔/었다가는
	46	V/A-기 마련이다	V/A-게 마련이다
	63	V-고 나서	V-고 나니(까)

	64	아무 N도	아무 N(이)나	
	65	V/A-(으)면	V/A-거든	
	66	V-아/어 놓다/두다	V-아/어 있다	
	67	V-고	V-(으)ㄴ 채(료)	
	68	N마저	N조차	
	69	V/A-(으)ㄴ/는 법이다	V/A-기/게 마련이다	
	70	V-아/어 버리다	V-고 말다	
	72	V/A-더라도	V/A-(으)ㄴ지라도	
5	1-1	V/A-더라고(요)	V/A-던데(요)/데(요)	
	1-2	V/A-던가(요)	V/A-왔/었던가(요)	
	3-1	V/A-(으)나	V/A-지만	
	3-2	V/A-(으)ㄴ/는 반면에	V/A-(으)ㄴ/는 데 반해	
	4-1	V/A-(으)ㄴ/는(으)ㄴ 듯하다	V/A-(으)ㄴ/는(으)ㄴ 듯싶다	
	4-2	V/A-(으)ㄴ/는(으)ㄴ 모양이다	V-나 보다, A(으)ㄴ가 보다	
	4-5	V/A-(으)려나	V/A-(으)ㄴ까	
		V/A-(으)려나 모르다	V/A-(으)ㄴ까 모르다	
	5-1	V/A-(으)면	V/A-다면	
	5-3	V-자면	V-(으)려면	
	5-4	V-다(가)보면	V-다가는	
	5-5	V/A-지 않고서는	V/A-아야/어야	
	5-6	V-는 날에는	V-왔/었다가는	
	7-1	V-는 바람에	V-는 통에	
7-3	V-다(가)	V-느라(고)		
7-4	V/A-기에	V/A-길래		
8-2	V-(으)ㄴ 바에야	V-느니		
8-3	V/A-든(지) V/A-(든)지	V/A-건 V/A-건		
6	1-1	N은/는	N이/가	
	2-4	V/A-(으)ㄴ 리(가) 없다	V/A -(으)ㄴ 리(가) 만무하다	
	3-1	V/A-거니와	V/A-(으)ㄴ뿐더러	
	3-3	N은/는 물론이고	N은/는 고사하고	
	4-5	V/A-던 차에	V-(으)려던 차에	
	5-1	V/A-(으)ㄴ	V/A-기, V-(으)ㄴ 것	
	5-2	V/A-다는 N	V/A-(으)ㄴ/는(으)ㄴ N	
	6-1	V/A-듯(이)	V-다시피	
	7-4	V/A-(으)ㄴ망정	V/A-(으)ㄴ지언정	
	7-5	V-는 한이 있더라도	V-는 한이 있어도	
8-2	V-게/게끔	V-도록		
<경희2>에 제시된 유사 문법 항목				
초급	1	3	N이에요/예요	N입니다
		7	V/A-습/습니다	V/A-아/어요
		14	N하고	N과/와
		18	안 V/A, V/A-지 않다	못 V, V-지 못하다
		27	V-(으)세요	V-(으)십시오
		29	N에게	N한테/께
	35	N에서 N까지	N부터 N까지	

	2	38	N에게(서)	N한테(서)/께
		39	V/A-(으)르 겁니다	V/A-(으)르 거예요
		14	V/A-아야/어야 하다	V/A-아야/어야 되다
		39	V-다가	V-았다가
		45	V-기로 하다	V-기로 결심하다/결정하다 /정하다/약속하다
		47	N처럼	N같이
		중 급	1	19
22	V-아/어 놓다			V-아/어 두다
26	V/A-더라			V/A-다라고(요)
30	V-던			V-었던
48	V-고 나서			V-고 나니(까)
2	10		V-다가는	V-았/었다가는
	19		V/A-기 마련이다	V/A-게 마련이다
	42		N마져	N조차
고 급	1	17	N은/는	N이/가

15) 대표형을 ‘차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예문 제시에서는 ‘차에’와 대치 가능한 ‘차였는데’를 사용하고 있다.

16) ‘하다’ 대신 ‘생각하다’, ‘싶다’가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으)려니 하다’라는 대표형에 대해서 ‘-겠거니 하다’가 대치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겠거니’로 대치가 가능하다고만 설명하여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ABSTRACT

A Study on Similar Korean Grammar Items
: With a Focus on Korean Language Textbook
Analysis

Chen, Zheng · Kim, Jungnam
Kyung Hee University

Among the Korean grammar items, there are many items that are similar in meaning or usage in form, meaning, and pragmatic use. Items with similar forms may be used in a confused manner, and if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meaning, foreign learners who do not have any intuition in Korean will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is paper, among the grammar items presented in various ways among the six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and widely used by Korea's representative university-affili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those that could be included in similar grammar items were extracted and the list was presented at a glance. It was summarized and arranged so that the items that appeared in more textbooks could be compared and listed. In additi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esentation method of similar grammar were critically considered and a desirable presentation method was proposed.

Key Words: Grammar items, list, similar grammar, Korean textbook, grammar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3. 05. 06

■ 심사완료일 : 2023. 06. 03

■ 게재확정일 : 2023. 06. 09